

글 _ 전홍윤(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홍보팀장)

나눔, 어제 그리고 오늘



보 통 '박애'나 '자선'을 뜻하는 말로 알고 있는 필랜트로피(Philanthropy)는 '사람사랑'이라는 뜻이다. 그리스의 비극작가 아이스킬로스가 신에 대한 경외가 아닌 인간에 대한 사랑을

Philanthropia(인간애)라고 불렀던 것이 오늘날 나눔을 상징하는 말로 자리 잡게 되었다. 또한 이 말은 로마시대에 '휴머니즘(Humanism)'으로 번역되어, 오늘날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상이나 철학을 대표하는 말로 함께 쓰이게 되었다.

하지만 휴머니즘이 근원적인 인간 사랑을 지칭하는 것에 비해 필랜트로피는 시간과 재능 그리고 재물을 나누는 실천적인 활동과 관련해 사용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 세 가지 형태의 나눔은 결과는 물론, 그 과정에서 사람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나눔의 역사는 언제부터일까?

서로를 아끼고 돕는 마음은 이미 고대 중동, 그리스와 로마시대부터 존재했다. 기원전 387년 플라톤의 아카데미를 위한 기부금이 900년 이상이나 지속됐고 중세 유럽 상인들은 19세기에 공익을 위한 조직을 만들었다. 현대에는 많은 부자들이 록펠러재단이나 카네기그룹 같은 개인재단들을 만들고 예술, 교육, 의학, 공공정책, 사회복지서비스, 환경 등 다양한 나눔 사업을 하고 있다.

나눔 선진국으로 불리는 미국의 경우, 적어도 140만개의 비영리조직이 있으며, 지난해에는 2490억달러(250조원)의 사회기금을 모으기도 했다. 또한 최근에는 많은 지역재단(Community foundation)이 설립되어 각종 공익사업을 지원한다. 물론 이들 뒤에는 이런 금전적 나눔과 함께 셀 수 없이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시간 나눔이 자리 잡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나눔은 철학이나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라고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나눔은 '기부금이나 물품'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시간'을 나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하지만 나

눔이 좋은 일, 필요한 일이라고 해도 여전히 시작은 쉽지 않다.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나눔의 역사는 언제나 현재 진행형

최근 이런 어려움을 덜어주고 좀 더 쉬운 나눔 참여를 위해 유명 인사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가수, 영화배우 등 연예인들의 경우는 높은 지명도와 친밀감 덕분에 재단이나 기관에서 영입(?)을 원하는 1순위가 되고 있다. 대부분 홍보대사, 명예대사 등의 호칭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사실상 바쁜 일정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거나 집중적인 활동을 하기 어려운 것 또한 현실이다.

하지만 미국공동모금회(United Way of America) 이사이며 영화배우인 조지 클루니는 올 여름 미국을 강타한 카타리나 피해복구를 위한 기금으로 1백만달러(10억원)를 쾌척하면서 기금모금을 주도했고, '툼레이더'로 유명한 안젤리나 졸리는 영화촬영지였던 캄보디아 고아를 입양하면서 제3세계 아동의 인권 문제에 눈을 떠 인권운동가로 거듭나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 지원 프로젝트 'We are the world'를 기획한 영국 가수 밥 겔도프 같은 이들은 노벨 평화상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월드비전의 김혜자, 한비야 씨를 비롯해 지난 7년간 사랑의열매 홍보대사로 나눔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있는 채시라 씨 등 많은 대중스타들이 단순히 '홍보용 대사'를 넘어서 나눔을 삶의 중심에 받아들이고 이를 실천하며 스스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

사랑의열매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62일간 '나눔은 행복+행복'을 슬로건으로 희망2006이웃사랑캠페인을 펼치게 된다. 하지만 두 달간의 모금 목표액 1205억원보다 더 소중한 것은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나눔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간다는 일이다. 나눔은 체계적인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살아 숨쉬는 '현재'이기 때문이다.